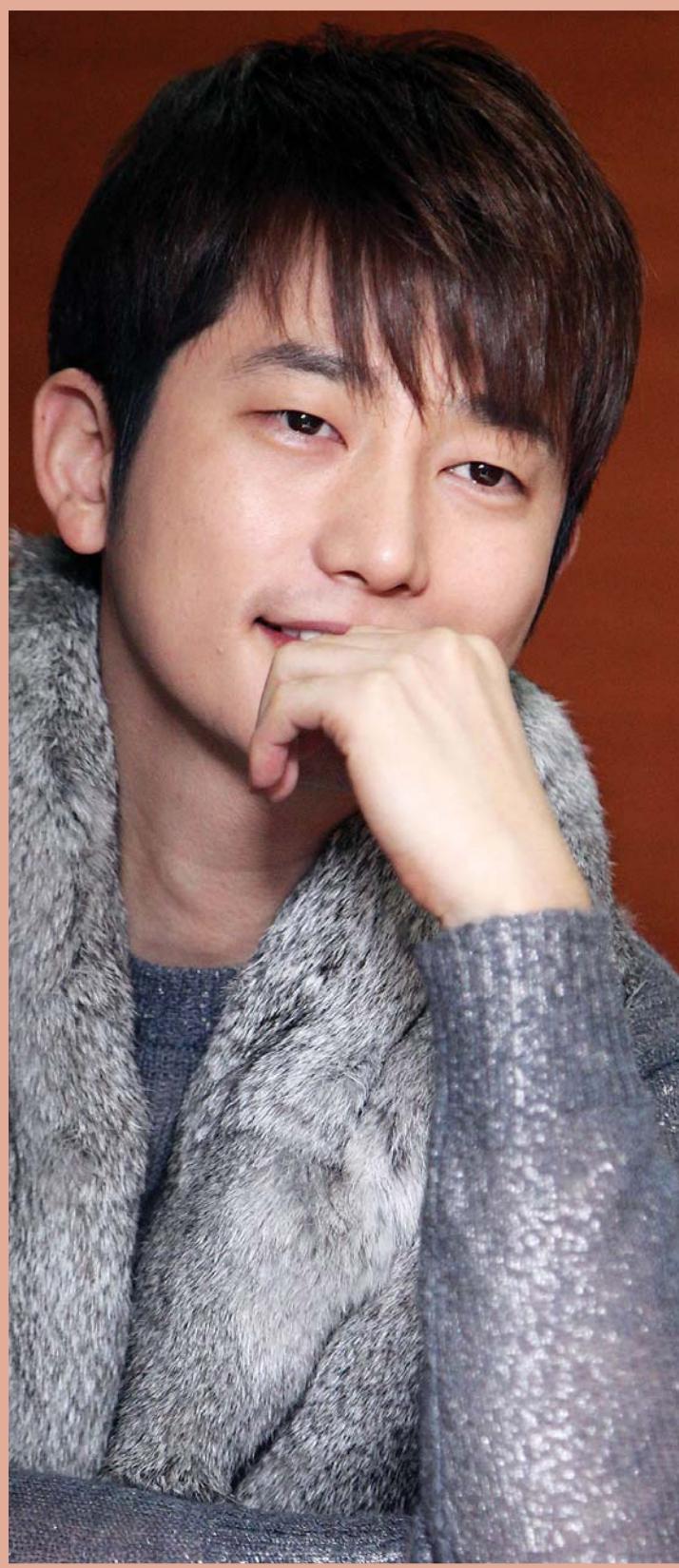


# 엔터테인먼트

## “꼬쁜男 용식 시청률 역전에 도전합니다”



“연달아 멋진 역할을 맡다보니 어쩔 수 없이 왕자병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웃음) 가끔 스태프나 매니저 앞에서 왕자병에 걸린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용식이 같다’고 합니다.”

### ‘역전의 여왕’ 박시후

박시후는 “요즘 용식이 캐릭터에 풀 빠져있는 것 같다. 작품 끝나면 정상으로 돌아와야하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내조의 여왕’의 히트로 만들어진 ‘역전의 여왕’에서 박시후가 연기하는 구용식은 재벌가 서자라는 아픔을 갖고 있지만 능력있고 매력있어 못 여성들로부터 ‘꼬쁜남(꼬시고 싶은 남자)’으로 불린다. 패셔너블한 데다 노래방에서 섹시댄스도 멋지게 소화해 회사 여직원들이 뒤로 넘어간다.

“꼬쁜남”이라고 대본에 써준 작가 선생님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밤을 하기도 재미있고 멋진 뜻이라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런 남자가 연상의 이현녀 황태희(김남주 분)를 짹사랑하니 여성 시청자들의 판타지를 더욱 자극한다.

### “멋진 역할 많이 해 맘가지려 노력중”

“현재는 용식이 혼자 열렬히 짹사랑하는데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초반에는 황태희가 유부녀라 선을 넘어서도 안되고 선을 지키면서 조금씩 진전되는 것을 보여줘야 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혼하기 때문에 용식이의 마음이 편한 것 같고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치려고 틈만 나면 노력하고 있어요.(웃음) 조만간 진한 키스신이 나을 것도 같아요. 기대해주세요.”

구용식은 매력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까칠하고 엉뚱하다. 성격도 금해 오해도 잘하고 실수도 많이 한다.

“실제로는 너무 차분해서 탈이예요. 신중하다는 소리까지 듣죠. 그래서 용식이처럼 빠릿빠릿하고 순발력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용식이의 그런 모습은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제가 구용식과 닮은 점이 있다면 평소에는 낯을 많이 가리지만 친해지면 장난꾸러기, 개구쟁이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는 거죠. 작가님이 저의 그런 면을 극중에서 많이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구용식같은 캐릭터는 박시후에게 처음이 아니다. ‘완벽한 이웃을 만드는 법’부터 ‘가문의 영광’ ‘검사 프린세스’까지 그는 줄곧 재벌가 자제, 혹은 돈많고 능력있는 남자를 연기해왔다. 비슷한 캐릭터의 반복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안 그래도 그런 점 때문에 구용식은 좀 더 허술하고 엉뚱하게 보이려고 노력해요. 그간 계속 재벌, 멋진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많이 망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극중 비서랑 이야기할 때는 둘째 이상 스타일로 소리도 지르고 오래된 친구 대하듯 농담도 많이 해요. 현장에서도 애드리브를 많이 넣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 박시후도 코믹연기가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돼 큰 수확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작품에서는 좀 카리스마 강한 캐릭터를 해보고 싶어요. 느와르도 좋고 뱀파이어 같은 역할도 좋아요.”

### “코믹연기 가능성 수확…연장 논의 대찬성”

2부로 기획된 ‘역전의 여왕’은 21일 종영 예정이지만 드라마가 후반으로 가면서 탄력이 붙고, MBC의 후속작 편성 문제 등과 겹쳐 현재 연장을 검토 중이다.

“연장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입니다. 시청률 역전의 그날까지 연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목처럼 실제로 역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웃음)”

그는 “용식이는 머리좋고 능력 있지만 서자라 눈치밥 먹고 살면서 발톱을 숨겨왔다”며 “드라마는 목표 없이 살던 용식이가 황태희, 팀원들과 부딪히며 점점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지던트’ 하희라

### “남편과 동반 출연 힘든 선택 호흡 잘 맞지만 이번이 마지막”

KBS 2TV 수목드라마 ‘프레지던트’에서 남편 최수종과 부부로 호흡을 맞추는 배우 하희라가 동반 출연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희라는 “처음부터 최수종씨와 (부부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동반출연이라고 얘기하면서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왕 출연할꺼면 최상의 캐릭터를 고르자고 했다”며 “부부한테 이런 좋은 캐릭터가 온 게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다”고 전했다.

최수종과 하희라는 한 작품에 출연하는 것은 결혼 전인 1991년 영화 ‘별이 빛나는 밤’ 이후 19년 만이다.

‘프레지던트’는 3선 국회의원 장일준이 당내 경선을 거쳐 대통령이 되기까지 과정을 그린 드라마로 최수종이 장일준, 하희라는 장일준의 아내 조소희로 분해 극중에서도 부부로 호흡을 맞춘다.

하희라는 한 차례 출연 제의를 거절했었다며 “20년이 넘는 연기생활 동안 이 역할만큼은 정말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상대역이 남편이었기 때문에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최수종씨가 먼저 캐스팅이 됐는데 부인으로서 먼저 대본을 보고 너무 재미있겠다고 말했어요. 정치에 관심 없는 제가 보더라도 너무 재미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출연 제의를 받았는데 상대역이 남편이었기 때문에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는 “결국 배우 최수종이었기 때문에 해야겠다고 결정했다”며 “결정한 후 생각보다 몰입이 잘 된”고 전했다.

그는 “현장에 와서는 배우 대배우로 만난다”며 “안 좋은 시선들을 극복하려면 캐릭터로만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희라는 상대역으로서 최수종에 대해 “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역이자 배우로서 배려를 많이 해 준다”고 평했다.

하희라는 역할에 대해 “선과 악의 경계를 오가는 역할”이라며 “보는 분들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악역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해체그룹 ‘씨야’ 남규리

### 마지막 앨범 제작 참여

배우 남규리가 최근 해체를 발표한 그룹 ‘씨야’의 마지막 앨범 ‘굿바이 마이 프렌드’에 참여한다고 씨야의 소속사 코어콘텐츠 미디어가 밝혔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씨야 멤버로 활동하며 1집 ‘여인의 향기’부터 3집 ‘화걸’까지 냈던 남규리는 ‘굿바이 마이 프렌드’에서 씨야의 연지, 보람과 함께 신곡을 읊하고 뮤직비디오에도 참여한다.

남규리는 “비록 탈퇴했지만 씨야는 내 영원한 동료이기에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 마지막 앨범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씨야의 히트곡과 신곡 두 곡이 수록될 ‘굿바이 마이 프렌드’는 내년 1월 10일 발매된다.

### 완벽한 방수성 + 리모델링 효과로

### 건물의 수명과 가치가 높아집니다.

##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無중금속

無독성

내구성  
내마모성

내오염성

이파엘지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공순서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칼라단열외벽방수공법

- 특허 제0544371호 -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ipalgi.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여수대리점 (061) 284-0485  
010-6603-040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 남도한정식 “동감”

(동의보감)

연말모임, 회갑연,  
돌잔치 및 각종모임  
대·소 연회장 및  
주차장 완비

예약 문의 062-611-7533  
011-645-4588

티켓몽기에서는  
매일 밤 11시,  
광주의 모든 곳이  
반값이 됩니다!

<http://www.t-mong.co.kr>

50%~90%

오늘 단 하루! 티켓몽기에서는

60%  
SALE

이젠 피부에게도 유기농을 먹이자!  
명품 천연약초 테라피

수완지구 YES 뷰티 스웨어

울 겨울 아름다운 피부 가꾸기 프로젝트!

YES 뷰티스퀘어 수완지구 롯데마트 옆 062) 953-0204

YES 뷰티스퀘어 명품 천연약초 테라피 정상가 200,000원 특별할인가 80,000원

NAVER 티켓몽기 를 검색해보세요.

본 광고를 오려서 가져오는 분들은 YES 뷰티스퀘어 재생관리 프로그램을 추가 할인됩니다.